

전국 국어국문학과 의 현황 분석과 미래

Presenter: 오현석 (한국문학회, 부산대)



1. 국어국문학과의 다양한 이름들

- 국어국문학과

국문학



- 한국어문학과
- 한국어학부
-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과
- 글로벌한국어과

국문학+한국어



- 국어국문창작학전공
- 한국문학콘텐츠창작학과
- 미디어한국어문학전공

국문학+창작



2. 국어국문학과 소속과 단위의 변화(단과대학 단위)

<단과대학 단위>

- 인문대학 소속
- 사회과학대학 소속
- 문화·예술 대학 소속

<학부, 전공 단위>

- 인문학 연계
- 사회과학 연계
- 어문학 연계

<변화의 양상>

- 학과 / 학부 / 전공 단위의 명칭 변경
- 단과대학 간 이동
- 학과, 전공 통합
- 폐과

단과대학 소속의 변화

융합 교육의 필요성

다양한 단과대학 소속은 국어국문학과와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융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문적 경험을 제공한다.

소속 변화의 역사적 배경

국어국문학과와 소속 변화는 시대적 요구와 학문적 발전을 반영하며, 교육 체계의 변화를 나타낸다.



사례 연구의 중요성

각 대학의 소속 변화 사례는 국어국문학과와 발전 방향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학부 및 전공 단위의 변화



01

단과대학의 다변화

국어국문학과는 인문학 외에도 사회과학 및 문화·예술 대학으로의 소속 변화가 증가하며, 학문적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02

전공 프로그램의 혁신

기존 단일 전공에서 벗어나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연계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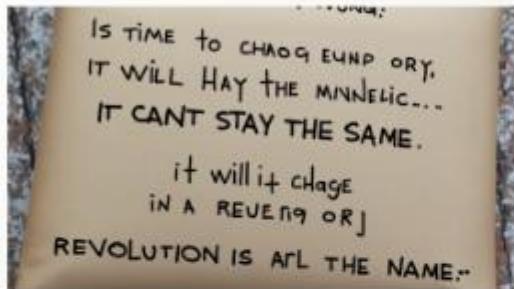
03

사례 기반의 변화 분석

상명대학교와 인제대학교 등에서 명칭 및 소속 변화 사례는 국어국문학과의 현대적 요구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준다.

AI에게 물어본 변화의 근거

변화의 양상과 사례



명칭 변경의 중요성

국어국문학과와 명칭 변경은 학문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단과대학 간 이동 사례

국어국문학과와 소속 단과대학 이동은 학문 간 융합을 촉진하며, 현대 교육 환경에서의 협력적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학과 통합의 필요성

학과 및 전공 통합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문학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AI에게 물어본 변화의 근거

3. 모집인원 및 모집 방법 변화

<모집인원>

- 1980년대 졸업정원제 실시로 입학 인원 증원

2000년대 대학 정원 감축 기조에 따라 정원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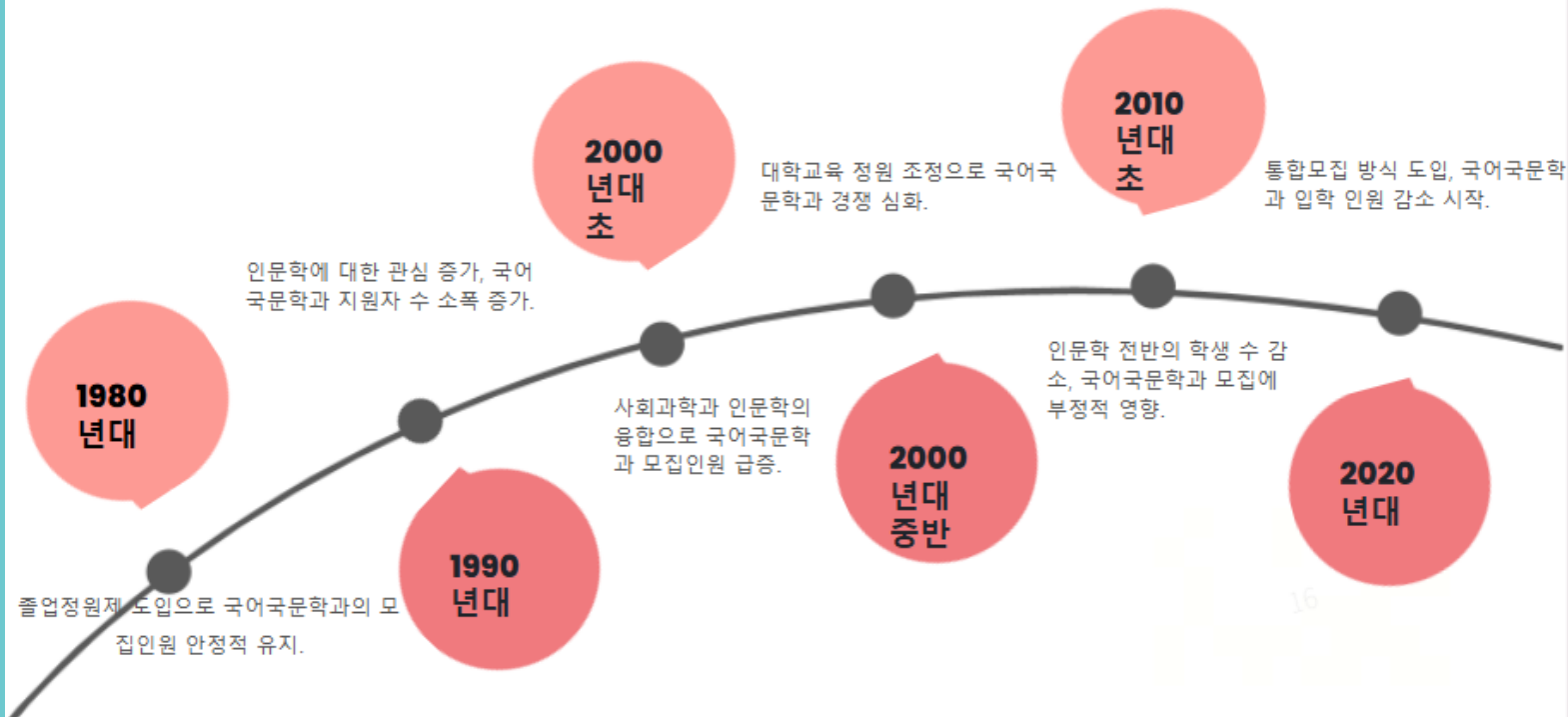
<모집 방법>

- 2020년대 이후 학부, 단과대학 단위 통합모집 추세

- 개별 학과 단위 -> 학부 단위, 무전공

모집인원 및 모집 방법 변화

과거의 모집인원 추세



모집인원 및 모집 방법 변화

모집 방법의 변화

통합모집의 장점

통합모집 제도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진로 탐색을 통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01

02

전공 선택의 유연성

무전공 입학 제도의 활성화로 학생들은 1학년 동안 여러 전공을 수강하며, 국어국문학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학별 모집 변화



대학별 모집 인원 변화

각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모집 인원은 시대적 요구와 학문적 변화에 따라 조정되며, 이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명칭 변경의 영향

학과 명칭의 변화는 학생들의 관심과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문적 정체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통합 모집 방식의 도입

통합 모집 방식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국어국문학과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4. 국어국문학과와의 변화 예시

- 제2회 한국현대문학자대회 제도팀 취합 자료 활용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국어국문학과와 명칭이 변경된 학과
- 국어국문학과가 다른 학과와 통폐합되었지만 여전히 그 요소가 유지되고 있는 학과
- 문예창작학과, 미디어 관련 학과의 관련성

국어국문학과의 변화의 예시(상명대)

- - 1989년 국어국문학과(정원 40명) 인가
- 1999년 학부제로 동양어문학부 개편
- 2003년 학과제로 한국어문학과
- 2017 대학 구조 개편에 따라 한국언어문화학과
- 2020 대학 구조 개편에 따라 한국언어문화전공

명칭과 소속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어국문학과의 변화의 예시(인제대)

- 1988년 국어국문학과 창설
- 1999년 인문문화학부(국문과, 사학과, 철학과) 통합
- 2003년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박사과정) 신설
- 2005년 국어국문학과, 역사고고학과, 인문학부로 확대 개편
- 2006년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학부로 확대 개편
- 2017년 인문문화융합학부(한국학부, 역사고고학과, 인문학부)로 통합
- 2021년 인문문화학부로 학과 명칭 변경
- 현재 학부 모집 중단

학과 통합과 존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어국문학과의 변화의 예시(동의대)

- 1981년 국어국문학과 신설
- - 1999년 동양어문학부(국어국문학, 중어중문학, 일어일문학)으로 개편
- - 2001년 문예창작학과가 신설되어 한국어문학부(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로 개편
- - 2006년 한국어문학부에서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로 분리 개편
- - 2015년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를 통합하여 국어국문·문예창작학과로 개편
- - 2020년 한국어문학과를 거쳐 국어국문학과로 개편

결합과 분리를 살펴보면...

5. 기타 고민이 필요한 사항

- 국립대와 사립대의 국어국문학과 명칭 유지 비율 차이
- 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국어국문학 위상
- 국어국문학 대학원생의 공동화 현상과 쏠림 현상
- - 국어국문학과가 존재하지만 입학 인원이 10명 이내인 경우와 인문학부 통합 여러 전형 선발

6. 국어국문학과 미래

- 국어국문학과 변화와 국어국문학 사람들
- 국어국문학이라는 학문의 존재가능성

AI가 알려준 국어국문학이 살아남으려면?

국어국문학과의 변화 방향

01

융합 교육의 중요성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융합 교육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한다.

02

디지털 기술 활용

디지털 인문학의 도입은 국어국문학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통해 현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03

글로벌화 대응 전략

한국어와 한국 문학의 세계적 보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해외 교류 확대는 국어국문학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AI가 알려준 국어국문학이 살아남으려면?



학문적 존재 가능성

01

사회적 요구 반영

국어국문학과는 한국어와 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변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문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02

연구의 다각화

문학 창작, 비평, 현대 문화와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연구 분야를 통해 국어국문학의 학문적 깊이를 확장하고 있다.

03

인력 양성의 중요성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편이 이루어져,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마무리하며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 연구자, 국어국문학 학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고민해보기 위한 기회로 만들어진 이곳에서 우리가 디디고
서있는 지금의 자리를 진지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석

ohssek@hanmail.net